

축산관측은 한육우, 돼지, 젓소, 산란계, 육계, 오리외의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 육계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2,5,8,11월) 25일에 발표됩니다.

사육

3월 1일 기준 육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 HPAI 발생으로 인한 종란 폐기와
한파 및 질병 발생으로
육용 종계 생산성 하락

- ◆ 3월 1일 기준 육계 사육 마릿수는 6,898만 마리로 전년 대비 8.1% 감소
 - 한파 및 저병원성 AI 등 질병 피해로 육용 종계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병아리 생산 감소
 - HPAI 발생으로 인한 종란(465만 개) 폐기
- ◆ 2월 병아리 생산량 전년 대비 8.7% 감소
 - 종란 폐기로 병아리 330만 마리 생산 감소
 - 저병원성 AI 발생으로 종계 산란률 저하와 병아리 배부율 하락(77%→71%)

도축

3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감소
기온 상승으로 생산성이 회복되어
4월 이후 사육 및 도축 안정화

- ◆ 3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평년 대비 많으나, 전년(7,232만) 대비 8.2% 감소한 6,638만 마리 전망
 - 육용 종계 생산성 하락과 종란 폐기로 병아리 생산 줄어 도축 감소
- ◆ 3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종계 생산성은 회복되고, 4월 이후 안정화 전망
 - 3월 이후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적으나, 평년보다는 많아 가격급등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



육용 종계 생산성 회복을 위한 철저한 질병 관리 필요!

종계 사육 동향

사육 마릿수

1월 31일 기준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종계 생산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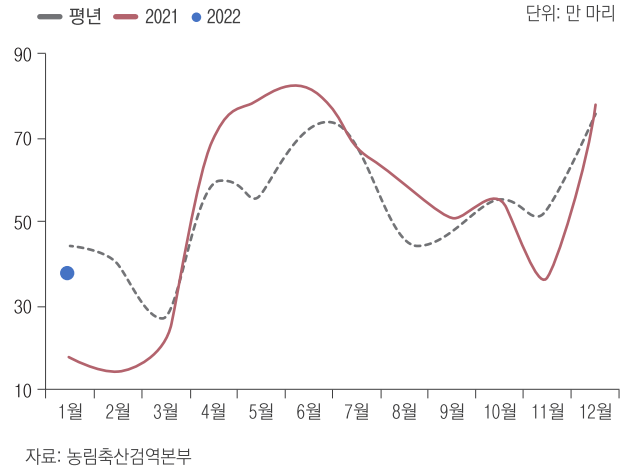
- 사육 마릿수(1월)
 - 전체: 817만 3천 마리 (전년 대비 4.2% 증가, 평년 수준)
 - 닭고기 생산 과잉 우려로 9월 이후 누적 종계 병아리 입식이 줄어 육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
 - 종계 성계: 484만 3천 마리 (전년 대비 10.1%, 평년 대비 9.4% 증가)
 - 작년 1~4월 집중 입식된 종계가 많아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
- 저병원성 시 발생으로 산란률 저하와 병아리 배부율 하락: 37만 9천 마리 (평년 대비 16.1% 감소)
 - 산란률 저하(감염 계군): 80%→최대 40%, 전체 배부율 하락: 77%→71%

◆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 현황(매월 말일 기준)

구분	사육 마릿수(만 마리)			전월 대비(%)	
	전년 11월	전년 12월	1월	12월/11월	1월/전년 12월
2022년	839 (495)	806 (466)	817 (484)	-3.9 (-6.0)	1.4 (4.0)
2021년	869 (475)	799 (435)	784 (440)	-8.0 (-8.5)	-1.9 (1.1)
평년	871 (456)	851 (447)	818 (443)	-2.3 (-2.6)	-4.0 (-1.0)
전년 대비(%)	-3.5 (4.2)	0.8 (7.0)	4.2 (10.1)		
평년 대비(%)	-3.7 (7.8)	-5.3 (4.0)	0.0 (9.4)		

주: ()안은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육용 종계 도태 마릿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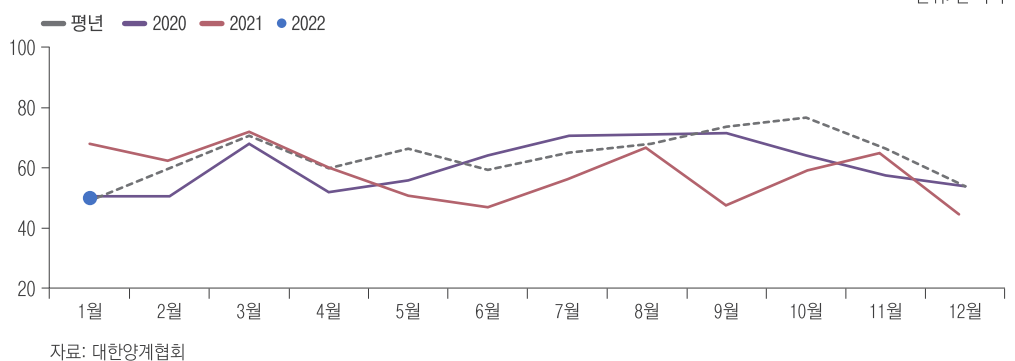


종계 입식 동향

1월 육용 종계 입식 마릿수 평년 수준

- 1월 종계 입식 마릿수: 49만 5천 마리(전년 대비 27.3% 감소, 평년 대비 1.0% 증가)
 - HPAI 발생에 따른 종계 살처분으로 입식이 크게 증가하였던 작년 1월보다는 감소하였으나, 평년 수준으로 입식

◆ 육용 종계 입식 동향



사육 및 도축 전망

병아리 생산 전망

2월 병아리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월 병아리 생산량: 6,753만 마리 (전년 대비 8.7%, 평년 대비 1.5% 감소)
 - 한파와 질병(저병원성 AI) 발생으로 종계 생산성 하락과 HPAI 발생으로 인한 종란 폐기(465만 개)*
 - * 종란 465만 개 폐기 시, 병아리 생산 330만 마리, 도축 324만 감소 예상
 - 병아리 생산 감소(330만)=종란(465만)×배부율(71%): 전년 병아리 생산의 약 9.6%
 - 도축 감소(324만)=병아리(330만)×육성률(98.0%): 전년 도축의 약 9.6%

◆ 육계 병아리 생산 전망

단위: 만 마리

구분	1월	2월	전월 대비(%)
2022년	5,756	6,753	23.1
2021년	5,819	7,395	27.1
평년	5,712	6,855	19.8
전년 대비(%)	-1.1	-8.7	
평년 대비(%)	0.6	-1.5	

주: 육계 병아리는 닭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닭 중 육계(Broiler)로 키워지는 병아리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사육 전망

3월 1일 기준 육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3월 1일 육계 사육 마릿수: 6,898만 마리 (전년 대비 8.1%, 평년 대비 2.1% 감소)
 - 2월 병아리 생산이 줄어 사육 마릿수 감소

◆ 육계 사육 마릿수 전망(매월 1일자 기준)

단위: 만 마리

구분	2월	3월	전월 대비(%)
2022년	5,857	6,898	16.8
2021년	5,948	7,509	26.2
평년	5,920	7,045	19.0
전년 대비(%)	-1.5	-8.1	
평년 대비(%)	-1.1	-2.1	

주 1)육계는 닭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닭 중 육계(Broiler) 종(種)
2)사육 마릿수는 매월 1일 시점에 사육되고 있는 마릿수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육계 도축 전망

3월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하나, 평년 대비 증가

- 3월 도축 마릿수(누적): 6,638만 마리 (전년 대비 8.2% 감소, 평년 대비 0.5% 증가)
 - 육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줄어 도축 마릿수 감소 전망

◆ 도축 마릿수 현황 및 전망

단위: 만 마리

구분	2월	3월	전월 대비(%)
2022년	5,653	6,638	17.4
2021년	5,703	7,232	26.8
평년	5,538	6,604	19.2
전년 대비(%)	-0.9	-8.2	
평년 대비(%)	2.1	0.5	

주: 도축은 육계 도축 마릿수로 매월 누적 합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21년 2~3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2019년 기준 원종계(하바드) 비중 축소 및 품종 전환(아바에이커) 등으로 폐사율이 감소하여, 사육 마릿수는 적지만 도축 마릿수는 평년 대비 소폭 증가

중기 공급 전망

닭고기 생산 전망

4월 이후 육계 사육 및 도축 마릿수 안정화 전망

- 3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종계 생산성 회복 전망
 -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많고, 저하되었던 생산성이 기온 상승으로 회복되며 4~5월 육계 사육 및 도축 마릿수 안정화
 - 작년 5월 이후 종계 입식 감소 영향으로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점진적으로 감소 전망
- 2022년 4~5월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하나, 평년 대비 증가
 - 4~5월 도축 마릿수는 평년 대비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상황으로 생계 유통가격 급등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

축산관측(육계) 2022년 4월호 예고(예정일자: 2022. 3. 25.)

- 축종: 육계
- 내용: 사육 동향과 전망, 수급 및 가격 동향과 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수출입동향

『축산관측』은 농업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산관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을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43) 238-3060 FAX: 043) 238-3533
<http://www.mafra.go.kr> ☎ 044) 201-2341 FAX: 044) 868-3965

담당자: 이형우(축산관측팀장), 김서영(산란계), 지선우(한우), 김충현(돼지), 강지석(젖소), 김형진(육계), 임효빈(오리), 김경진(해외축산)
 감 수: 정민국(농업관측센터장)

『축산관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관련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